



충남 태안의 당봉전망대에서 본 바다. 국내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로 꼽힌다. 내일의 해는 뜨지만, 오늘의 해는 오늘만 볼 수 있다. 해돋이도 좋고 해넘이도 좋다. 새해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신년여행을 떠나보자.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 태안 만대항, 해넘이도 좋다던데~

### 새해 가족여행 '떠오르는 명소 5곳'

영덕 '블루로드' 해안길 따라 동해 트레킹  
한강 발원지 태백 검룡소·인천 무의도 절경

한해를 시작하는 1월1일 아침에 일출 명소를 찾아 떠오르는 신년 첫 해를 감상하는 해돋이 구경은 이제 겨울여행을 대표하는 풍속도 중 하나이다. 연말이나 연초에 가족과 함께 한 해를 새 출발하는 마음을 다지는 신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여기서 새 출발 2016!'이라는 테마로 선정, 발표한 다섯 곳의 여행지는 신년 가족 이벤트에 적합한 떠오르는 명소들이다.

### ●동해 겨울바다 절경 트레킹, 영덕 블루로드(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교로)

'블루로드'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688km의 해파랑길 가운데 영덕 대교로 공원에서 강구항,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64.6km의 해안길을 가리킨다. 이 구간은 일부 산길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를 끼고 걷는 곳이라서 시원스레 펼쳐진 동해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인기 트레킹 코스다. 블루로드 4개 코스 중에서도 풍광이 가장 좋기로 소문난 지역은 '푸른대교의 길'(B코스)이다. 완주하려면 5시간 정도 걸리지만 30분~1시간 정도만 걸어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제철인 영덕대게 집산지 강구항, 물가자미

가 맛있는 축산항, 일출명소이자 창포말대교가 있는 해맞이공원, 축산항을 굽어보는 죽도산전망대, 초록빛 현수교로 만든 블루로드다리 등 볼거리가 많다.

### ●한강 발원지에서 시작하는 새해 여행, 태백 검룡소(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한강 발원지 태백 검룡소는 주차장에서 약 20여분 걸어가면 닿을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산책 삼아 찾아가기 좋다. 검룡소는 하루 2000~3000톤의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솟는다. 가을에도 마르지 않고 수온도 연중 9도 안팎으로 일정하다. 아래에는 너비 1~2m로 파인 암반을 따라 20여 미터를 흐르는 '용틀임폭포'가 있다. 태백 시내에 있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태백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철암역 두, 고생대 전문박물관인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산도립공원 등이 가족여행코스의 여정에 포함하면 좋다.

### ●서울 지척에 이런 곳이...무의도 호룡곡산(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무의도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하며 숙박시설과 음식점도 잘 갖추어져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기 좋은 곳이다.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연륙도로를 따라 잠진도 선착장까지 가서 배를 타면 10분 정도 걸린다. 섬에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절경의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있다. 호룡곡산 정상에 오르면 자월도, 영흥도, 승봉도 등 주변 섬

들과 인천대교, 송도국제신도시까지 보인다. 겨울바다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하나해변과 인도교로 연결된 소무의도의 무의바다누리길이라는 해변 산책로도 놓치면 안 된다.

### ●다도해 사이 일출과 일몰 절경, 도솔암(해남군 송지면 마봉송종길)

'땅끝 마을' 해남에는 두륜산과 함께 기암이 우뚝 솟은 달마산이 있다. 달마산에 고즈넉한 암자인 도솔암이 있다. 도솔암은 암자로 가는 길 중간에 완도의 섬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과 도솔암을 배경으로 떨어지는 일몰의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인근 달마산 미황사와 두륜산 대흥사도 해남의 명소이다. 대중사 입구의 두륜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해남의 너른 평야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장관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8500만 년 전 공룡과 익룡의 발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공룡박물관도 있다.

### ●명동 반열에 오른 저녁노을 트레킹, 태안 만대항(충남 태안군 이원면 원리로 일대)

태안반도 가로림만 북쪽 끝의 이원면 만대항은 태안 솔향길 1코스의 출발점이다. 솔향길 1코스는 특히 저녁노을 트레킹이 유명하다. 삼형제바위, 당봉전망대, 용난굴 등을 거쳐 꾸지나무굴 해변까지 이어진다. 만대항은 겨울 굴로 유명하다. 포구 인근에 굴 양식장, 염전 등이 만대마을과 어우러져 있다. 인근에 신두리 사구, 마애삼존불 등이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 적자노선 폐지·조직 슬림화 아시아나, 허리띠 졸라맨다

아시아나항공이 적자노선 폐지 및 정비항 공사(LCC) 이관, 조직슬림화 등 고강도 경영정상화 대책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서울 기반의 L

CC 자회사 에어서울에 일본 지선과 동남아 심야 노선 등 11개 노선을 이관한다. 또한 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3월 미얀마 양곤과 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

조직슬림화를 위해 국내 23개 지점을 14개 대표 지점으로 통합하고, 해외 128개 지점도 92개 대표 지점으로 축소한다. 업무도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문업체에 위

탁한다. 조직 정비에서 생기는 유휴인력은 직무변경을 통해 타 업무로 재배치하고 신규 채용을 축소와 희망퇴직 및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한다. 또 장거리 노선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칩대형 좌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퍼스트클래스는 A380을 투입하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운영한다. 2017년 도입 예정인 A350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실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 외국인 소매물품 사전면세제...20만원 이하 즉시 환급

### ■2016년 관광·레저 산업 어떻게 바뀌나?

한국방문의 해, 범정부차원 관광객 유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 규제 등 완화

2016년은 우리 관광·레저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해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범정부차원에서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또한 2016년은 '중국인 한국관광의 해'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관광산업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소매물품 사전면세제도 도입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품 판매점에서 20만원 이하의 물건(체류기간 총 100만원 한도)을 사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즉시 환급)를 한다.

이러한 관광객에 대한 구매현장 환급제도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해 관광객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업계에서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반출물품 확인대상(환급액 5만원 이상)도 현행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변경해 간소화한다.

또한 관광 숙박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2016년 3월부터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일정 조건 충족하면 학교환경위생청와 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객실 4900실이 늘고 1만 5000명 일자리 창출과 8055억원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한중일 3국의 도시를 선정해 교류를 추진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는 올해 청주에 이어 2016년에 제주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다. 충북 제천, 경남 통영, 전북 무주 등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3년간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와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와 '한국 내 프랑스의 해'(2016년 1월~12월)를 통해 관광, 체육,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평창으로 오세요" 겨울 축제의 최고 볼거리로 꼽히는 평창송어축제가 3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대에서 열린다. 얼음낚시터에서 송어를 낚아 구이터나 인근 화석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사진은 올 초에 열린 평창송어축제의 얼음낚시터.

## 송어야 놀자!...31일 평창 얼음낚시터 가자

### 제9회 평창송어축제...주말엔 야간개장

'추위야 반갑다'. 예년보다 포근했던 겨울 날씨로 개장을 연기했던 평창송어축제의 명물 얼음낚시터가 2015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문을 연다.

제9회 평창송어축제는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대에서 18일 개막했지만 이번 달 내내 계속된 따뜻한 날씨로 인해 얼음이 충분한 두께로 얼지 않아 얼음낚시터 개장을 늦추며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다행히 28일부터 추워진 날씨에 덕분에 송어낚시터의 얼음이 방문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로 얼 전망이고, 영하의 추위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31일 개장을 결정했다.

얼음낚시터가 개장되면 얼음이 구멍을 뚫고 평창군 또는 인근 지역 양식장에서 자란 길이

30~40cm 송어를 낚시할 수 있다. 작은 송어는 축제장 내에 마련된 구이터나 인근 화석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송어낚시 참가자들에게는 바람을 막아주는 텐트가 제공된다.

평창송어축제에서는 얼음낚시 외에 가족단위 방문객이 송어맨손잡기,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디스코팡팡, 미니기차 등의 겨울놀이 즐길 수 있다. 축제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되고, 1월1일부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개장도 실시한다.

한편 1월2일에는 평창송어축제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정환이 가족과 함께 송어얼음낚시와 송어맨손잡기 등에 참여하고, 1월3일에는 유명 셰프 에드워드권이 2018평창올림픽 특선 메뉴인 송어만두, 송어튀김을 선보이는 요리 이벤트를 개최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편집 | 송승우 기자 sss23@donga.com

연말연시에는 **홀랄라치킨**과 함께 하세요!

Every Girl's Day~  
Every HOOLALA Day~

매장에서 즐겨먹던  
홀랄라의 맛 그대로

문의 1577-0004

전화한동으로  
집에서도 느껴보세요!

2016

# 창업하러 HOOLALA

### 홀랄라 본사만의 강력한 성공 경쟁력

- ☑ 색다른 24가지 맛과 지속적인 메뉴 개발
- ☑ 숯불 바베큐의 참맛을 내는 홀랄라만의 기술력
- ☑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과학적 조리 메뉴얼
- ☑ 창업연구 지원센터의 끊임없는 연구
- ☑ CVO 위생물류시스템으로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

### 성공을 위한 홀랄라 치킨카페의 "핵심 창업 포인트"

- ☑ 20대를 끌어들이는 고급 카페형 인테리어로 분위기 업!
- ☑ 여성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색다르고 깔끔한 메뉴구성!
- ☑ 점심메뉴 추가로 낮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테이블!
- ☑ 고급 맥주와 카페음료 메뉴구성으로 매출은 덤!

---

### 착한창업 Care & Cure

창업 마스터가 달려갑니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라면 전국 방방곡곡 언제나 상권과 권리금 분석, 시장조사, 창업비용 조달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가맹 문의 **1588-9205**

무담보 저금리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